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18호

5월, 가정의 달 특집

스포츠 스타의 위대한 아버지들... 때론 친구처럼, 때론 엄격하게!

권세희 어린이동아기자

[2024 여성마라톤]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서 열려...올해로 24회

이른 무더위에도 7천여 명... '2024 여성마라톤 대회' 개막

이세아 여성신문기자

'모두의 스포츠', 장애 고려하지 않은 기준 적용 '차별'

'모두의 스포츠', 장애 고려하지 않은 기준 적용 '차별'

김최환 칼럼니스트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

경찰, 오재원에 대리처방 수면제 건넨 전현직 선수 13명 수사

이미령 연합뉴스기자

우크라이나의 역도선수 올렉산드르 피엘리센코

개전 첫날 입대한 우크라이나 역도 챔피언 '전사'... 첫 사망 올림픽 선수 [월드피플+]

박종익 나우뉴스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스포츠 스타의 위대한 아버지들... 때론 친구처럼, 때론 엄격하게!

부모님께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기 위해 마련된 '어버이날'은 5월 8일. 이날을 맞아 모두에게 인정받는 스포츠 스타를 훌륭하게 키워낸 스포츠인 출신 아버지들을 만나볼까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엄격하게 자녀에게 다가갔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 소중한 가르침을 주는 부모님의 감사함을 함께 되새겨 보자고요!

자만에 빠지지 말거라



“아버지에게 야구와 관련된 건 배운 적이 없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무대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야구 선수 이정후가 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입단(어떤 조직에 들어감) 기자회견에서 “아버지로부터 어떤 야구 기술을 배웠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내놓은 답변이에요.

이정후의 아버지인 이종범은 한국은 물론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활약하며 한일 프로야구 통산 2000개 넘는 안타(야구에서 타자가 한 베이스 이상을 갈 수 있게 공을 치는 일)를 달성하는 등 훌륭한 경기력을 보여준 야구 선수였어요. ‘바람의 아들’이라고 불렸던 이종범은 어째서 그의 아들 이정후에게 야구 기술을 전수해주지 않은 걸까요?

아들인 이정후가 ‘유명한 선수의 아들’이라는 이름값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선수들과 똑같이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야구를 배워 실력을 높이기를 원했기 때문! 한창 기본적인 것을 배워야 할 단계에서 아버지로부터 타격(공을 배트로 치는 일) 기술 등을 배우면 자만에 빠질 수도 있기에 이를 우려한 것이지요

이정후는 “아버지는 좋은 사람으로 클 수 있도록, 큰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가르침을 주셨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태도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의 주장으로 활약하는 세계적 축구 스타 손흥민이 멋진 축구 선수로 자리매김한 데 아버지 손웅정의 역할이 컸던 건 유명하지요. 손웅정 역시 프로 축구선수로 활약한 바 있어요. 축구 선수로의 삶과 고충에 대해 알고 있었기에 아들인 손흥민이 나태(느리고 게으름)해지지 않도록 엄격한 모습을 보였어요. 손흥민이 어린 시절부터 상을 받아오면 축하의 말을 전한 뒤 상은 모두 치워 눈에 보이지 않도록 했다고. 상을 보면 우쭐해져 겸손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언제나 인품(사람으로서 가지는 품격이나 됨됨이)을 가꾸어야 한다’는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손흥민은 축구 실력만큼이나 빛나는 인성을 가져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요. 부진한 동료 선수들을 격려하고, 경기를 마치고 그라운드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거나 다친 손가락으로도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등 귀감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아들아~ 함께 뛰자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가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브라질 축구 구단 아메리카 풋볼 클럽(America Football Club)에 속한 축구 선수 호마리뉴의 아버지인 호마리우. 호마리우는 1994년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를 수상한 브라질의 전설적인 축구 선수인데, 최근 58세의 나이로 다시 축구 선수에 복귀했어요. 이유는 축구선수인 아들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기 위한 것.

호마리우는 복귀 소식을 알리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아들과 축구장에서 함께 경기에 뛰는 꿈을 이루고 싶다”고 밝혔어요.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동료처럼 아들과 함께하며 ‘축구선수’라는 꿈을 공유하고 싶은 아버지의 바람이 담긴 것이에요.

이른 무더위에도 7천여 명... '2024 여성마라톤 대회' 개막

4일 오전 '2024 여성마라톤 대회'가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의광장에서 개막했다. 7천여 명이 참가해 때 이른 불볕더위 속에서도 즐겁게 몸을 풀고 준비선에 섰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 김성범 서울시체육회 부회장 등이 참석해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김현욱 아나운서가 개회식 사회를 맡았다.

오 시장은 "요즘 서울시가 건강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제 꿈은 서울시민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열심히 운동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모두 건강해지시라"고 응원을 전했다.

신 차관도 "좋은 날 참가해 주신 모든 분이 목표 지점까지 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완주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김 대표는 "오늘 날씨의 축복을 받고 최고의 분들이 모여 최고의 순간을 만들겠다"며 "안전하게 즐겨달라"고 당부했다.

권오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의장,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대표, 김민정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 역시 단상에 올라 참가자들에게 인사했다.

여성마라톤 티셔츠를 2년째 후원한 올포유 김영철 한성에프아이 회장이 올포유 전속모델 배우 김소연·이상우 부부와 함께 인사할 땐 참가자들의 감사의 박수로 호응하기도 했다.

김종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왕미양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이정은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장, 이찬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정문식 이레F&B코리아 대표, 조운수 서울시여성간호사회장, 최예담 전문직여성한국연맹(BPW) 회장(가나다순) 등 각계 인사들도 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올해로 24회를 맞은 '여성마라톤대회'는 2001년 시작해 지금까지 27만7천여 명의 시민과 함께한 대표적 가족 마라톤 대회다. 여성신문사는 여성과 가족을 위한 스포츠 축제를 통해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매년 여성마라톤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 슬로건은 '런 포 유! 비 해피!(RUN FOR YOU! BE HAPPY!)'로, 너와 내가 함께 달릴 수 있는 기쁨을 만끽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참가자들은 10km, 5km, 3km 총 3개의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 달린다. 모두 상암동월드컵공원에서 시작해 평화의 광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마라톤대회 전후로는 무료 시음회와 테이핑 등 다양한 이벤트도 열린다.

‘모두의 스포츠’, 장애 고려하지 않은 기준 적용 ‘차별’

최근 국가 스포츠 정책과 현대의 스포츠 트렌드(trend)는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모든 사람의 스포츠’ ‘모두의 스포츠’를 지향하고 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모든 사람에 의한 스포츠, 모두의 스포츠는 장애인, 고령자들도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자신이 원하는 생활 스포츠 종목에 참가 활동하는 것으로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스포츠 기본법 제3조 정의에 따르면 “스포츠”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하며, 제4항에서는 “장애인 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모든 스포츠 활동 곧 생활 스포츠와 전문 스포츠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고령자 등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문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생활체육 종목별 동호회나 동네 스포츠클럽에 참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운동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운동장, 용품, 규칙)을 개선하고 배려해 주고 편의를 제공해 주어 함께 운동하며 비장애인들과도 어울리고 스포츠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소통과 화합의 사회를 조성하고 “안전하게” 함께 즐기며 건강을 지키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스포츠 유형이나 종목별 특성을 유지하면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이 참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생활 스포츠 종목별로 정관이나 경기규칙, 반칙조항, 심판 행위 요령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에 따른 “기준”을 다시 설정 보완하여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이 차별이 없는 스포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운동하는 스포츠, 운동에서 장애가 없는 편리한 스포츠, 모든 세대가 더불어 어울리며 안전하게 스포츠를 즐기게 하는 스포츠 환경을 함께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동안 ‘국민체육진흥법’이 1962년에 제정되어 국민의 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과 명량한 생활을 영위케 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해 왔었다.

2021년 7월 이른바 스포츠 3법 (스포츠 기본법, 스포츠 클럽법, 체육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2022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포츠는 특정 선수나 국위 선양의 전유물이 아닌 누구나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 할 기본적 권리로서의 스포츠 권을 보장함”으로서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차별 없는 스포츠의 배리어프리 스포츠 정책 체계(패러다임)로의 전환을 위한 초석이 놓인 것이다.

스포츠 기본법’에서 ‘기본’은 체육 정책을 ‘진흥’하기 위한 기본이 아니라, 인간이 누려야 할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는 가치 측면에서 ‘기본’이다.

특정하게 이념화된 ‘국민’이 아니라 보편 인권 차원의 ‘모든 사람’이 이 법에 해당하며 바로 그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환경과 조건에서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로써 개인의 행복과 사회관계의 형성이 이뤄지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공동체의 민주적 발전에 스포츠가 기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이 '기본'에 따르면 스포츠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증진, 각종 차별금지와 혐오 배제, 모든 생명의 존중과 그에 기반한 모든 사람의 여러 신체적 조건에 대한 가치와 배려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환경과 신체적 조건에서 차별 없이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과 고령자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생활 스포츠 종목에서는 차별적인 규정이나 규칙, 반칙조항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1항에 직접차별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항에 간접차별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

실제로 스포츠 현장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대한 직접차별보다는 특히 위의 2항 간접차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배리어프리 스포츠 매니저로 장애인 스포츠와 생활 스포츠에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생활 스포츠 게이트볼 종목에서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음을 경험하고 있다.

게이트볼 경기는 10명의 경기자가 각각 5명씩 홍색 볼 팀과 백색 볼 팀으로 나누어 정해진 경기장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볼 번호대로 순번에 따라 필드에서 경기하며 10명의 선수가 30분간 경기를 진행하고 총득점이 높은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사실적으로 생활 스포츠 종목 중에서 '게이트볼' 종목만큼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많이 참가하는 스포츠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의 참여를 인식하지 않은 경기 규정에 따라 반칙플레이 조항이 무려 30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이에 따른 반칙 조치로 인하여 종종 시비와 다툼이 벌어지기도 한다.

심지어는 이것을 빌미로 하여 스포츠 활동을 그만두거나 타 파크골프 종목으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다. 이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게이트볼로 함께 운동하자고 권하면 '맨날 싸운다면서요!' 하면서 거절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다. 이런 것 때문에 게이트볼 동호인의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다.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반칙플레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타임오버' 반칙이다. 타임오버 반칙이란 타자는 10초 이내에 타격 또는 스파크 타격을 해야 하는데 10초가 넘어가면 타임오버 반칙으로 타자는 계속 타격권을 상실하고 타자 아웃을 당하게 된다. 10초 계측의 기점은 심판이 타순 통고를 했을 때, 계속 타격의 권리가 발생했을 때, 스파크 타격의 권리가 발생했을 때이다. 다시 말해서 타자의 계속 타격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10초를 세고 10초를 넘기면 반칙이 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 비장애인이나 젊은이들도 이 10초 타임을 지키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타순 통고를 받고 스타트 타격으로 1 게이트를 통과한 볼이 2라인 근처까지 가서 정지했을 때부터 타자가 스타트 라인에서 볼이 정지한 위치까지 대략 13m -14m를 걸어가는데 10초 안에 도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는 더욱 그렇다.

또 다른 경우는 타자가 자구를 타격하여 타구를 터치하였는데 그만 타구가 10m 이상 떨어져 정지한 시점부터 타구를 집으러 가고 타구를 집어 자구가 정지한 위치까지 되돌아오는데 10초가 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에도 발걸음이 느린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10초 룰'을 지키게 하는 게 그들에게는 불리한 반칙조항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상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간접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아웃 볼 상태에서 인볼 시킬 때 코드의 사정에 의해 밀어치기를 한 경우나 두 번 치기 한 경우, 타순 통고를 받고 필드에 들어가다가 실수로 아웃 볼을 추구하는 경우나 필드 안의 정지된 볼을 추구한 경우라든지, 자구를 잘못 밟아서 자구가 발밑에서 조금 벗어난 경우, 밟은 발만 친 경우, 터치한 타구를 집은 후 스파크 타격을 하기 전에 그 타구를 떨어뜨려 그 타구에 의해 다른 타구나 자구를 이동시킨 경우, 스파크 타격을 하기 위해 세트 하면서 타구를 스틱으로 끌어오는 경우, 장애인이나 고령자에게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등 이외에도 몇 가지는 반칙조항에서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을 위한 스포츠, 모든 사람에 의한 스포츠, 모두의 스포츠는 장애인, 고령자들도 누구나 차별이나 배제 없이 자신이 원하는 스포츠 종목에 참가 활동하는 것으로 스포츠를 향유 할 권리를 가지도록 생활 스포츠 '게이트볼' 종목에서부터 시작해 보자.

경찰, 오재원에 대리처방 수면제 건넨 전·현직 선수 13명 수사

경찰이 전 야구 선수 오재원(39·구속)에게 대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전달한 혐의로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1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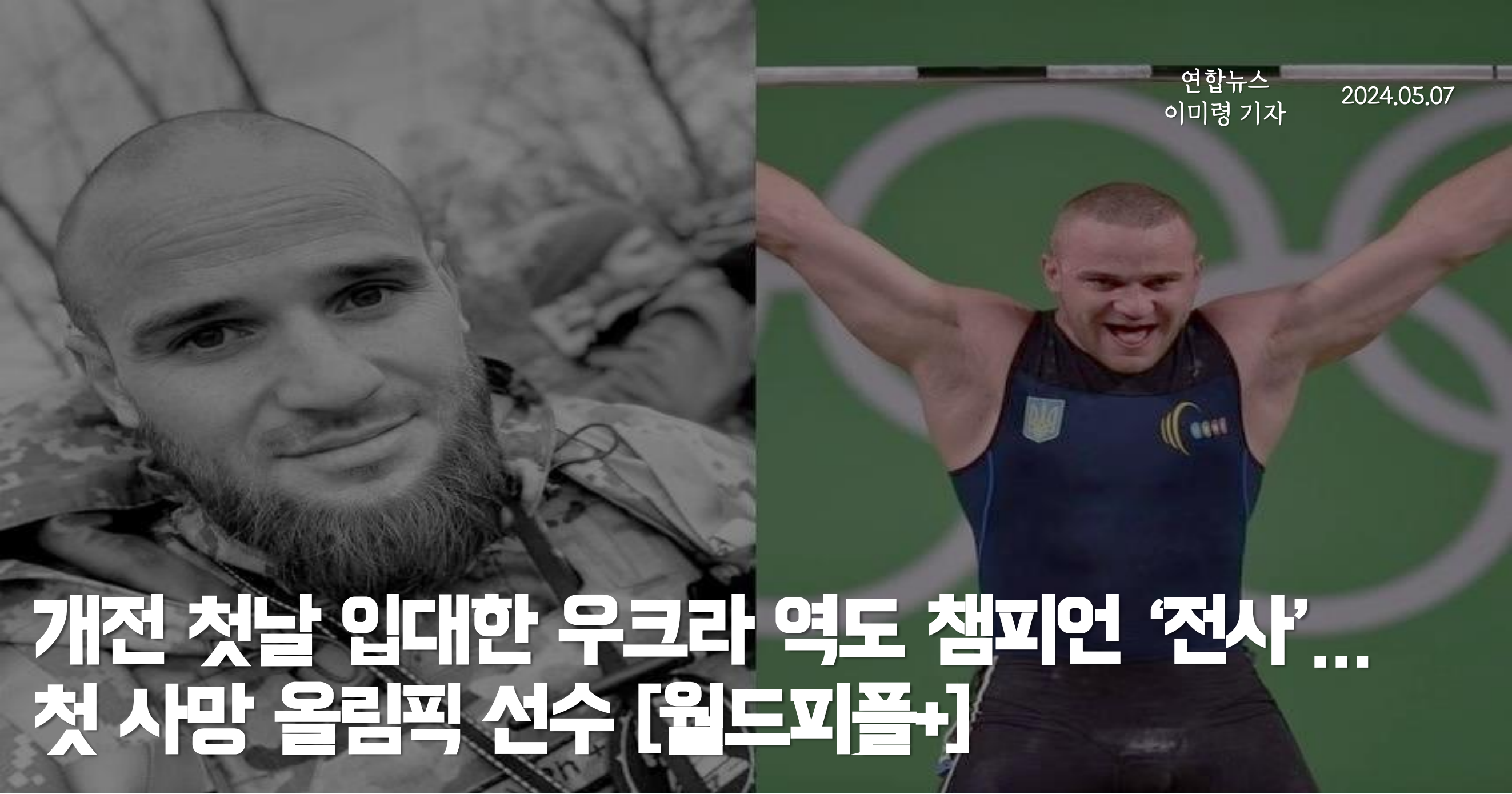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두산 베어스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확인해 명단을 통보한 8명 이외에 전·현직 선수 5명을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총 13명이 수사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연루된 이들 대부분이 2군 선수들로 오재원의 강압에 못 이겨 수면제를 건넬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력에 의해 할 수 없이 (대리처방) 해줬다면 최종적인 판단에서 참고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오재원은 앞서 지인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등 수면제를 처방받게 하고 이를 건네받아 상습 복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두산 구단은 문제가 불거진 3월 말께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소속 선수 8명이 오재원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건넨 사실을 지난달 한국야구위원회(KBO) 클린베이스볼센터에 신고했다.

조 청장은 또 현직 경찰 수십 명이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개인의 종교적 신념은 수사 또는 감찰 대상이 되기 어렵다"면서도 "종교적 신념이 불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의무 위반으로 연결되면 수사 또는 감찰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개전 첫날 입대한 우크라이나 역도 챔피언 '전사'... 첫 사망 올림픽 선수 [월드피플+]

우크라이나의 역도 국가대표이자 유럽 챔피언을 지낸 선수가 러시아와의 전쟁 과정에서 전사했다. 특히 그는 이번 전쟁에서 사망한 최초의 올림픽 참가 선수로 기록됐다. 지난 6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우크라이나의 역도선수 올렉산드르 피엘리셴코(30)가 러시아에 맞서 조국을 지키던 중 전사했다고 보도했다.

2차례나 역도 유럽 챔피언에 오른 피엘리셴코는 지난 2016년 브라질 리우올림픽에 우크라이나 대표로 참가해 85kg 부문에서 4위에 오른 유명 선수다. 다만 지난 2018년 도핑 위반으로 이후 출장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우크라이나 올림픽위원회는 5일 “피엘리셴코는 러시아가 침공한 첫날 우크라이나 군대에 합류했다”면서 “적과의 전쟁에서 사망했다는 슬픈 소식을 전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역도 연맹 측도 6일 인스타그램에 군복을 입은 그의 사진과 함께 “우크라이나 스포츠계의 명예로운 대가이자 유럽 역도챔피언인 피엘리셴코의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소식을 발표하게 돼 매우 슬프다”며 추모했다.

특히 언론들은 피엘리셴코가 이번 전쟁에 참전했다가 첫번째로 사망한 올림픽 참가 선수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러시아 선수들의 프랑스 파리올림픽 참가 자격을 개인 중립 자격으로 출전시키기로 허용한 방침에 다시 논란이 일 전망이다. 한편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스포츠 선수 출신으로 이번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사람은 4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간 스포츠 소식

女수구대회 활약 선수 알고보니 31세 트랜스젠더[글로벌X]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74246638885968&mediaCodeNo=257&OutLnkChk=Y>

고성 철성초, 중점학교스포츠클럽 태권도부 창단식 개최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910481>

올림픽 다가오니 홈리스는 나가라?...프랑스 정부 '청소 작업' 계속

<https://www.khan.co.kr/world/world-general/article/202405011606001>

KCC 농구단 '우승'...부산 연고 프로스포츠팀 우승 27년만

<http://news.lghellovision.net/news/articleView.html?idxno=465659>

대전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본격화된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3H6KMIM>

계양구, '어린이날 기념 스포츠페스티벌' 행사 성료

<https://www.wikitree.co.kr/articles/949195>

하이원리조트, 산림자원 스포츠 활용 가족 맞춤 관광상품 개발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40506/124807051/2>

'스포츠 관광'으로 태권도원 300만 방문객 시대 가능할까 [최수문 기자의 트래블로그]

<https://www.sedaily.com/NewsView/2D93G0HFN4>

"스포츠 음료도 제로"...롯데칠성, '게토레이 제로' 출시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40507_0002725135&cID=13001&pID=13000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